

# 응급 조치

이 경 진  
한구부제병연구소장

응급 조치란 때로는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조치이다. 전문 수의사가 도착하기 전에 취해진 적절한 응급 조치는 수의사의 치료비를 줄일수 있으며 응급 조치를 잘하면 치료에도 이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적절한 응급조치나 혹은 방치상태일때는 치료의 기회나 도태로 인하여 귀중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자! 그러면 실제적인 분만에 관한 응급조치 요령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낙농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큰 난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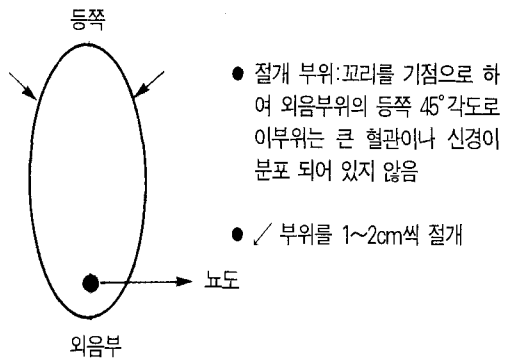
송아지의 분만은 여러가지 체위와 태향으로 태어난다.

비정상적인 분만중 제일 많은 경우는 과태아 및 태위, 태향의 이상이다. 축주는 정상적인 분만과정에서 조금만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서슴없이 분만상태를 신중히 진단하여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먼저 태아 과대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

골반의 크기가 정상인 반면 태아가 클 경우에는 분만을 지속하면서 외음부를 절개하는 응급 처치를 해 줌으로서 일단은 태아를 분만시킨후 절개된 외음부는 분만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면 일단 송아지의 생명은 건질 수 있다. 절개하는 깊이는 송아지의 크기에 따라서 분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을 때까

지 절개하면 된다. 이때 한쪽만 절개하는 것보다는 외음부의 양쪽을 절개하는 것이 좋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태아의 크기가 정상인데 비해 모체의 골반이 작거나 송아지의 기형 혹은 부패된 태아인 경우의 응급조치는 먼저 산도에 윤활제를 충분히 주입하여 건조를 방지하고 양다리를 번갈아가며 견인하여주고 머리 부분에다가 밧줄을 걸수있는 상황이면 태아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밧줄을 걸어서 당긴다. 이러한 난산을 거친 모축은 산도 및 골반에 손상이 갈수 있으므로 충분한 후 처치를 해주어야 하며 태아 과대인 경우에는 혈관과열로 인한 출혈이 있나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모축이 기립할 때 골반의 무리로 인하여 탈구될 우려도 있으므로 바닥에 흙, 또는 벧짚을 깔아주

어 미끄럽지 않도록 주의하고 뒷발목에 끈은 묶어주는 방법도 현명한 처치이다.

## 태아의 위치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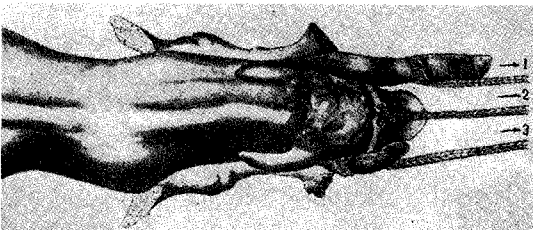
태아 위치 변형의 진단은 모축이 분만 진통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분만진행이 안되거나 분만 진통의 강약의 변화가 없거나, 무리하게 모축이 진통을 심하게 나타내거나 하면 축주는 반드시 내진을 해야 한다.

내진할 때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태아의 실위를 진찰할 때는 신중하게 실위를 진단하여야 하며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확실하게 정복할 수 있을 때까지 진단을 계속하여야 한다.

양수가 파수된지 오래된 모체는 산도가 건조되기 쉬우므로 점혈계를 충분히 주입한 후에 분만을 유도하여야 한다. 태아 실위의 진단은 태아가 산도에 있을 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자궁내로 밀어 넣은 다음 진단하는 것이 좋으며 태아를 자궁으로 밀어 넣을 때는 진통이 멈추었을 때를 이용하며 태아의 견인은 진통과 맞추어 견인한다. 이때에 양쪽 다리를 동시에 견인하지 말고 한쪽 먼저 당긴후 태아의 머리를 견인한후 나머지 다리를 견인하며 머리가 자궁으로 추퇴되는지를 확인하면서 견인한다. 태아가 자궁내에 깊이 있어 태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모체를 횡와시킴으로서 진단을 쉽게 할 수도 있다.

진단이 끝난 태아를 정복하여 견인할 때는 항상 정상분만 위치로 조작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견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인 분만자세에 이를때까지는 항상 머리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견인한다. 정상적인 분만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A) 1, 2, 3 은 잡아당기는 순서이며 모든 난산에 있어서 그림A와 같이 정복을 한 후 견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 외음부위 협착으로 인한 난산의 응급 조치

외음부 부위가 호르몬의 이상 혹은 발육부진이 되어 분만은 진행되고 있으나 양수땀 태포의 진행이 안되어 내진할때 산도가 좁아 한팔도 안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손을 펴서 산도에 집어 넣은후 주먹을 권후 빼는 방법을 몇번 해준다. 한손이 주먹을 쥐고 원활히 빠져 나올때는 두손을 넣어 주먹을 권후 뺀다. 이러한 방법을 여러번 해준 후 산도를 충분히 확장해 놓은 후 양수가 파수된 뒤에 분만을 유도하는 것이 산도가 좁아서 태아가 만출되지 않을 때의 응급 조치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양쪽 주먹을 권후 엄지손가락을 펴서 산도땀 외음부 부분을 쉽게 통과하면 보통의 송아지는 무리없이 만출시킬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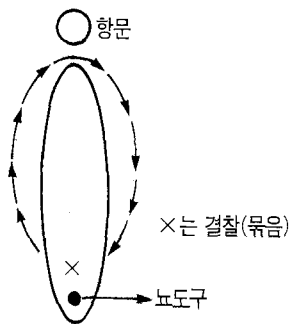
## 가사 상태의 송아지의 응급처치

과도한 난산이나 산소 공급의 차단으로 인하여 송아지가 가사 상태일 경우에 응급 조치는 일반적으로 거꾸로 매다는 경우가 허다하나 이는 양수를 과도하게 먹은 경우에는 양수 배출에는 도움이 되나 호흡 자극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을 자극하기 위해서 벗집으로 콧구멍을 자극하여 주거나 피부를 맞사지 하여 준다. 이런 자극을 주어도 호흡하지 않을때는 소독용 알콜을 콧구멍에다가 뿌려주어 호흡을 유발할수도 있으며 순환호흡 촉진제를 주사하는 수도 있다.

## 자궁탈의 응급조치

자궁탈은 분만후 자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외음부 밖으로 탈출되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젖소에서 분만 직후 또는 분만후 72시간이내에 발생된다.

자궁탈의 원인은 심한 노책(힘줄), 자궁의 무력증, 태반 정체등의 원인이다. 심한 난산도는 자궁이 건조한 상태에서 태아를 견인하였을때 노산우 혹은 건강 상태가 안좋은 소나 분만전 질탈 증상이 있었던 소에서 자주 발생되므로 이러한 병력이 있는 소는 분만 즉시 외음부를 결찰하여 자궁탈을 예방할 수 있다. 이때 결찰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외음부를 복주머니 때는 방식을 응용하면 된다. 이때 사용하는 실은 급할 때는 사료포대실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전문가와 상의하면 간단하게 질बंध침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자궁탈시의 응급 조치

자궁탈이 발생하면 밖으로 탈출된 자궁은 지저분한 이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끔 태반과 동시에 자궁이 탈출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심한 부종을 나타내는 경우도 왕왕 발견되며 부종이 심할 경우에는 맥박이 빨라지며, 불규칙한 호흡과 호흡수가 빨라지는 수도 많다.

한마디로 처음 당해 본 축주라면 혼비백산일 것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별로 힘들지 않고 탈출된 자궁을 원상 회복시킬 수가 있다.

일단 서두르지 말고 사람을 4~5명을 부른다. 인원이 확보되면 오염된 자궁을 깨끗한 물로 씻어서 감염을 줄인다.

충분히 세척한 후 플라스틱 물통이나 큰 합지박을 이용하여 탈출된 자궁을 꼬리 높이 정도로 5분 정도 들어올려 혈액 순환을 원활히 해주면 탈출된 자궁은 부종이 빠지고 부피가 줄어들게 됨으로 정복하기가 쉬어진다. 탈출된 자궁을 정복할 때는 반드시 건조를 막기 위하여 따뜻한 물에 소금을 적당량(약 0.6%) 녹인 후 탈출된 자궁에 뿌려주면서 주먹을 이용하여 밀어 넣는다. 이때 외음부의 둘레는 한정되어 있으므로



거대해진 자궁을 정복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외음부를 좌우측으로 약 3cm 정도를 가위로 절개 해주면 외음부의 둘레가 커졌으므로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정복이 끝난 후에는 정복된 자궁내에 체온 정도로 덤혀진 물(혹은 생리 식염수)을 5~7l 정도 자궁내에 주입한다. 이때 식염수 또는 물에 적당량의 수용성 항생제를 섞어서 투여하면 자궁내의 감염 예방과 자궁 수축 및 자궁이 제자리를 잡는데 효과적이다. 정복이 끝난 후 옥시토신 30~50단위를 혈관 주사하면 자궁은 급속도로 수축되어 재탈출을 막아주는데 효과적이며 소가 기립했을 때 노책(힘줄)이 없으면 재발은 드문 편이다. 정복이 된 후에도 72시간 정도는 관찰을 게을리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음문 봉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탈출되었던 자궁은 감염이 심하므로 자궁세척을 철저히해서 다음 번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와같이 분만시의 응급조치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나 글로서만 표현하므로 낙농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나 전화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약속하면서 다음호에는 일반적인 질병의 응급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맥내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지면으로나마 기원하면서... (㊦)

(필자연락처: 032-544-6771)